

부산지역 공공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A Policy Stud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Busan

배수현¹ · 김성신² · 정석찬^{3*}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¹,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²,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인공지능 그랜드 ICT연구센터³

요약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경제의 ‘쌀’인 데이터의 수집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 공공데이터 포털

Abstract

The unprecedented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called COVID-19 has dampened human and material movement, and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structure have caused various economic and industrial problems such as worsening employment along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recession. In this crisis situa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Deal” as a new card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following the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This means that the first business of the Digital New Deal, the beginning and core of the New Deal, begins digital transformation from collecting data, which is the “ri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o the data dam. Until now,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platforms for collecting and sharing public data by establishing various data portals. It is evaluated that it lacks utilization for commercialization as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focus only on building the platform without considering the business model when building the initial public data platform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regions, there is a lack of public data to be used for data business, so it is necessary to utilize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in the region. In this study, various data collection, data quality improvement, and data utilization improvement were suggested as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 Keyword : COVID-19, New Deal, Data Dam, Public Data Portal

2021년 11월 22일 접수; 2021년 12월 06일 게재 확정.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Grand ICT연구센터, IITP-2021-2020-0-01791) 및 2021년 부산연구원 정책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scjeong@deu.ac.kr)

I. 서론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체계가 무너졌다. 무엇보다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심화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020년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발표하였다[1]. 이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축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수정 발표되었다[2]. 최종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반영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였다[3].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크게 ①D.N.A. 생태계 강화 ②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비대면 산업 육성 ④SOC 디지털화로 구성되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10대 대표과제’로 ①데이터 댐 ②인공지능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 리모델링 ⑤그린 에너지 ⑥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⑦그린 스마트 스쿨 ⑧디지털 트윈 ⑨SOC 디지털화 ⑩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선정하였다. 금년 새롭게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로 조정하였으며,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5대 돌봄격차 해소’를 5대 대표과제로 발표하였다[4].

한국판 뉴딜의 시작이며 핵심인 디지털 뉴딜은 경제산업의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 스마트하게 바

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전환을 위한 D.N.A.(Data · Network ·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인 데이터 댐이 ‘10대 대표과제’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쌀’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출발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고 다양하게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활용을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데이터 댐이 제시된 것은 그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지원하였으나, 여전히 데이터 산업생태계가 취약하고 산업의 육성도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공공데이터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의 데이터 생성 실태를 조사하여 부산형 데이터 댐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부산의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국내 데이터 활용 정책 현황

2.1 데이터 댐 사업 현황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품질의 다양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댐이란 데이터를 각 분야의 모세혈관으로 보내기 위해 저장하는 인프라를 의미하며, 데이터 경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댐에 축적된 데이터는 5G 통신 인프라를 통

해 각종 활용 분야로 보내지며, 이렇게 공급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의 기법을 통해 분석·활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데이터 수집에서 축적·가공·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작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댐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축적·가공, 데이터 활용 단계에 따라 <표 II-1>과 같이 7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은 데이터의 수집에서 활용,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기준으로 7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99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5].

<표 II-1> 데이터 댐 7대 핵심사업(2020년 기준)

7대 핵심사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2,925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사업
AI 바우처 사업	560	다양한 분야의 제품·서비스에 AI 도입,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지원사업	489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AI학습용 데이터로 전환, 혁신적인 AI서비스 개발 지원
AI 융합 프로젝트 (AI+X)	282	각 분야 수집·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한 학습과 AI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250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핵심 과제 중 하나,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지원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80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확대 개편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405	공공·민간 협업하여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생산·개방, 국내 데이터생태계 혁신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9.2.),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사업 본격 착수 재구성

2.2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

EU,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맞춤형 활성화를 위하여 나라별 맞춤형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 수집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 보안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였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2021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0년 12월에 21개사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7개사에 대한 예비허가를 결정하였다. 2021년 1월말에 최종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 14개의 금융회사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 SK플래닛 등 14개의 핀테크 업체 등 28개사 모두 본허가를 취득하였다[6]. 정부는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이다. 최근에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II. 부산지역 공공기관 및 ICT 기업 설문조사

3.1 부산지역 공공기관 데이터 수집·활용 실태조사

3.1.1 조사개요

부산지역 공공기관 58개 중 설문에 응답한 54개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수집·공개 및 활용

〈표 II-2〉 나라별 마이데이터 정책 비교

구분	EU	영국	호주	미국	한국
이니셔티브	-	Midata 프로그램	소비자 데이터 권리 정책 (Consumer Data Right, CDR)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본인정보 활용지원 (MyData) 사업
추진 목적	EU 역내 개인정보 법제 일화 및 디지털경제 활성화	공정한 경쟁 촉진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	고객중심주의 시장경쟁유도 기회 창출 효율성·공정성 확보	데이터에 기반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경제로 전환
주관 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혁신 기술부 영국경쟁 관리당국	호주 재무성	주관정부기관 : 관리에산처 국립과학기술 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민관 협의체	-	Midata Innovation Lab	Advisory Committee	Green button Alliance Blue button Alliance	-
법안/정책	EU개인정보 보호법	기업 및 규제혁신법 정보공개법	소비자 데이터 권리 법안	오픈정부 실행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2020),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Samjong INSIGHT, Vol. 68

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방문, 메일, 전화 등 복합조사로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21년 7월 13일~8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크게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최종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6개, 정부기관 11개,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12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25개이다.

3.1.2 부산지역 공공기관 데이터 보유 실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기업의 데이터 수요는 많으나 기관 보유 누적 데이터는 ‘10종 미만’이 41.5%, ‘10~50종 미만’ 30.2%, ‘50~100종 미만’ 5.7%, ‘100종 이상’ 22.6% 정도로 50종 미만의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연간 보유 데이터도 50종 미

만으로 데이터의 수집 종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10종 미만’이 67.9%일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무엇보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10종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69.8%로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공공에 공개 중인 데이터는 ‘없음’ 35.8%로 가장 높았으며, ‘10종 미만’도 41.5%일 정도로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데이터 수집 활용 및 공개에 대한 조사에서 부산형 데이터 맴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원인 공공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 설문대상 부산지역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공공 연구 기관 (9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정부 기관 (11개)	(재)APEC기후센터,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항보안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혁신 도시 이전 기관 (13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 (25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주)백스코, 아시아드CC(주), 부산의료원,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부산복지개발원, 부산문화재단, (재)영화의전당,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재)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문화회관

〈표 III-2〉 설문 응답 공공기관 현황

구분	빈도	비율
공공연구기관	6	11.1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25	46.3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12	22.2
정부기관	11	20.4
합계	54	100

발생하는 데이터 분야 중 1순위 응답은 ‘문화관광’이 20.4%로 가장 높으나 중복응답에서는 ‘공공행정’ 데이터 발생률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는 생성되지 않고 있다.

〈표 III-3〉 기관 보유 데이터

구분	누적		연간	
	빈도	%	빈도	%
10종 미만	22	41.5	25	47.2
10~50종 미만	16	30.2	15	28.3
50~100종 미만	3	5.7	5	9.4
100종 이상	12	22.6	8	15.1
합계	53	100	53	100

〈표 III-4〉 활용 가능한 데이터

구분	공공		민간	
	빈도	%	빈도	%
10종 미만	36	67.9	37	69.8
10~50종 미만	10	18.9	9	17.0
50~100종 미만	3	5.7	3	5.7
100종 이상	4	7.5	4	7.5
합계	53	100	53	100

〈표 III-5〉 현재 공개 중인 데이터

구분	공공		민간	
	빈도	%	빈도	%
없음	19	35.8	16	30.2
10종 미만	22	41.5	21	39.6
10~50종 미만	6	11.3	11	20.8
50종 이상	6	11.3	5	9.4
합계	53	100	53	100

3.1.3 부산지역 공공기관 데이터 공개 여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외부 활용을 위한 공개 계획은 ‘데이터 공개 계획 있음’ 50.0%, ‘데이터 공개 계획 없음’ 50.0%로 나뉘었다. 데이터 공개 계획이 있는 27개 기관의 선호하는 데이터 공개 방법은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이 44.4%로 가장 높았다.

데이터 공개 계획이 없는 27개 기관이 응답한 데이터 공개 계획이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다수’가 40.7%로 가장 높았다.

〈표 III-6〉 발생하는 데이터 분야 (중복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응답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	2	3.7	4	12.9	1	8.3	7	7.2
국토관리	3	5.6	-	-	-	-	3	3.1
공공행정	2	3.7	17	54.8	3	25.0	22	22.7
재정금융	4	7.4	-	-	-	-	4	4.1
산업고용	4	7.4	1	3.2	1	8.3	6	6.2
사회복지	4	7.4	1	3.2	-	-	5	5.2
식품건강	-	-	-	-	1	8.3	1	1.0
문화관광	11	20.4	2	6.5	-	-	13	13.4
보건의료	3	5.6	-	-	-	-	3	3.1
재난안전	-	-	2	6.5	-	-	2	2.1
교통물류	2	3.7	2	6.5	1	8.3	5	5.2
환경기상	3	5.6	-	-	1	8.3	4	4.1
과학기술	7	13.0	1	3.2	3	25.0	11	11.3
농축수산	2	3.7	-	-	1	8.3	3	3.1
법률	1	1.9	-	-	-	-	1	1.0
기타	6	11.1	1	3.2	-	-	7	7.2
합계	54	100	31	100	12	100	97	100

〈표 III-7〉 보유한 데이터의 외부 활용을 위한 공개 계획

구분	빈도	%
데이터 공개 계획 있음	27	50.0
데이터 공개 계획 없음	27	50.0
합계	54	100

〈표 III-8〉 계획 있는 경우 선호하는 데이터 공개 방법

구분	빈도	%
개별적 공개 요청 (홈페이지에 데이터 리스트 공개)	3	11.1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기	9	33.3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	2	7.4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이용	12	44.4
기타	1	3.7
합계	27	100

〈표 III-9〉 데이터 공개 계획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	%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 가능한 데이터 부족	2	7.4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다수	11	40.7
데이터 중 보안 데이터 다수	3	11.1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 문제 발생	5	18.5
데이터 공개 시 시스템 운영 부담	5	18.5
기타	1	3.7
합계	27	100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 가능할 경우 판매 의사에 대해서는 ‘유료 판매 의사 없음’이 92.6%로 월등히 높았다. 유료 판매 의사가 없는 50개 기관의 이유는 ‘영리 목적의 사업 어려움’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 문제’ 22.0%, ‘사업성 있는 데이터 부족’ 10.0%, ‘데이터 소유권 문제’ 8.0%, ‘데이터 판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부담’ 4.0% 순이었다.

유료 판매 의사가 있는 4개 기관의 데이터 거래를 위해 선호하는 방법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수요자 대상 개별 거래’, ‘중개기관을 통한 위탁 거래’ 등이 각 1건이었다.

〈표 III-10〉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 가능할 경우 판매 의사

구분	빈도	%
유료 판매 의사 있음	4	7.4
유료 판매 의사 없음	50	92.6
합계	54	100

〈표 III-11〉 판매 시 데이터 거래를 위해 선호하는 방법

구분	빈도	%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1	25.0
수요자 대상 개별 거래	1	25.0
중개기관을 통한 위탁 거래	1	25.0
무료 공개	1	25.0
합계	4	100

결과적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수집·활용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데이터 판매 계획이 없는 이유

구분	빈도	%
사업성 있는 데이터 부족	5	10.0
데이터 보안 문제	11	22.0
데이터 소유권 문제	4	8.0
영리 목적의 사업 어려움	28	56.0
데이터 판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부담	2	4.0
합계	50	100

3.2 부산지역 ICT 서비스기업 데이터 수요조사

3.2.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지역 ICT 서비스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공공기관 조사와 동일하게 방문, 메일, 전화 등 복합조사로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21년 7월 13일~8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립년도가 10년 내외인 기업이 절반이 넘는 정도로 부산의 ICT 기업은 아직 성장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3〉 기업체 조사대상 현황

설립년도	빈도	비율
1999년 이전	8	7.5
2000년~2004년	25	23.4
2005년~2009년	17	15.9
2010년~2014년	28	26.2
2015년 이후	29	27.1
합계	107	100

3.2.2 부산지역 기업의 공공데이터 만족도

우선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data.busan.go.kr)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로 매우 높았다. 다수의 ICT 기업들이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 자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비즈니스에서의 활용도가 낮는데 원인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4〉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 인지도

구분	빈도	%	
<5점 평균>			
2.53			
5점 척도	전혀 모른다	23	21.5
	잘 모른다	39	36.4
	들어봤지만 큰 관심 없다	14	13.1
	조금 알고 있다	27	25.2
	잘 알고 있다	4	3.7
합계	107	100	

실제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86.9%나 될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개사 중에서도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돼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5〉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구분	빈도	%
활용 경험 있다	14	13.1
활용 경험 없다	93	86.9
합계	107	100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14개사의 경우 절반이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주로 제공받는 곳이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

busan.go.kr’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산지역 구군/공공기관별 대표 홈페이지(42.9%)’, ‘부산지역 구군/공공기관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6〉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주로 제공받는 곳

구분	빈도	%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 (data.busan.go.kr)	7	50.0
부산지역 구군/공공기관별 대표 홈페이지	6	42.9
부산지역 구군/공공기관에 직접 데이터를 요청	1	7.1
합계	14	100

한편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14개사의 경우 활용목적이 ‘참고자료용’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

구분	빈도	%
참고자료로 활용	5	35.7
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활용(모바일앱, 웹서비스 등)	3	21.4
타 시스템과 연계 데이터로 활용	3	21.4
학업 등 연구용으로 활용	1	7.1
실생활에 활용	2	14.3
합계	14	10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14개사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 공공데이터를 활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확성’(3.79), ‘접근성’(3.79) 등이 가장 높았으며, ‘다양성’, ‘충분성’ 등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데이터 대부분이 행정업무 중 생산된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며, 데이터 포털을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앞서 반복하여 지적된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공데이터

〈표 III-18〉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만족도

구분	5점 평균	5점 척도					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공공데이터 정확성	(빈도) %	3.79	-	-	(7)	(3)	(4)	(14)
			-	-	50.0	21.4	28.6	100
공공데이터 최신성	(빈도) %	3.36	-	(1)	(8)	(4)	(1)	(14)
			-	7.1	57.1	28.6	7.1	100
공공데이터 충분성	(빈도) %	3.36	-	(2)	(7)	(3)	(2)	(14)
			-	14.3	50.0	21.4	14.3	100
공공데이터 다양성	(빈도) %	3.36	-	(2)	(7)	(3)	(2)	(14)
			-	14.3	50.0	21.4	14.3	100
공공데이터 활용성	(빈도) %	3.71	-	-	(6)	(6)	(2)	(14)
			-	-	42.9	42.9	14.3	100
공공데이터 접근성	(빈도) %	3.79	-	-	(7)	(3)	(4)	(14)
			-	-	50.0	21.4	28.6	100
공공데이터 전반적인 만족도	(빈도) %	3.43	-	-	(10)	(2)	(2)	(14)
			-	-	71.4	14.3	14.3	100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3.43 정도로 높지 않았다.

부산시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체계 홍보’가 57.0%로 가장 높았다. 앞서 설문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결과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과 함께 신속한 데이터 공개 등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대한 지적이 역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공공데이터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다.

〈표 III-19〉 부산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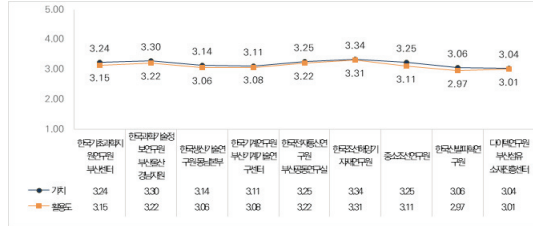
구분	빈도	%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체계 홍보	61	57.0
수요조사 통한 더욱 다양한 데이터 개방	12	11.2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상용화 제도 마련	10	9.3
민·관·학 협의체 마련 및 관련 포럼 등 활성화	1	0.9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	6	5.6
오픈 포맷(CSV, XML, RDF 등) 형태의 데이터 확대	6	5.6
정보 제공의 신속성(실시간성)	11	10.3
합계	107	100

3.2.3 부산지역 기업의 공공데이터 수요

3.2.3.1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및 전문연)

공공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3.34)이며, 데이터의 활용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3.3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 가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높으나 접근성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관의 성격과 직결된다. 데이터에 대한 수요인 데이터 개방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공동연구실’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 구매하

고 싶은 공공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꼽혔다.



〈그림 III-1〉 공공연구기관별 데이터 가치 및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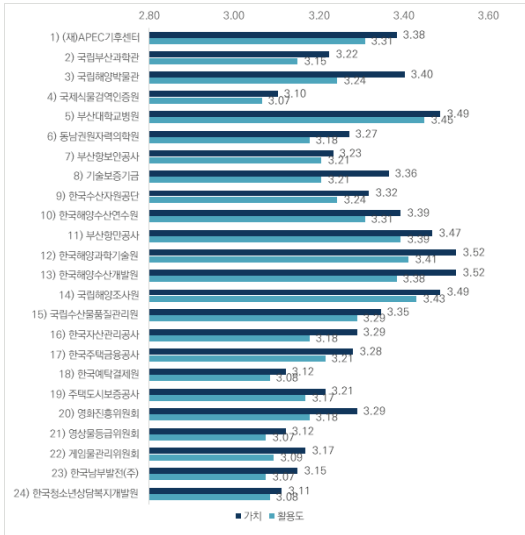
〈표 III-20〉 데이터 개방 및 구매 희망 공공연구기관

구분	데이터 개방 희망 기관명		데이터 구매 희망 기관명	
	빈도	%	빈도	%
<응답자 특성>(중복응답)	(64)		(5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25	18.5	16	16.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25	18.5	22	2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	16	11.9	10	10.1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16	11.9	12	1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공동연구실	28	20.7	20	20.2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6	11.9	13	13.1
중소조선연구원	6	4.4	4	4.0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	1.5	2	2.0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분원)	1	0.7	-	-
중복응답 합계	135	100	99	100

3.2.3.2 정부기관(국립 및 공공기관)

정부기관에 대한 데이터 가치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3.52)가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 활용도는 ‘부산대학교병원’(3.45)이 가장 높았다. 한편 데이터 개방과 구매를 희망하는 정부기관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을 모두 선택하였다. 이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2〉 정부기관 데이터 가치 및 활용도

3.2.3.3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데이터 가치와 활용도 모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가장 높았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이 부산지역의 ICT 산업을 지원함에 따라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개방을 희망하는 출자·출연기관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응답하였으며, 데이터를 구매하고 싶은 출자·출연기관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가장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정보와 제조업 데이터가 기업이 당장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판단하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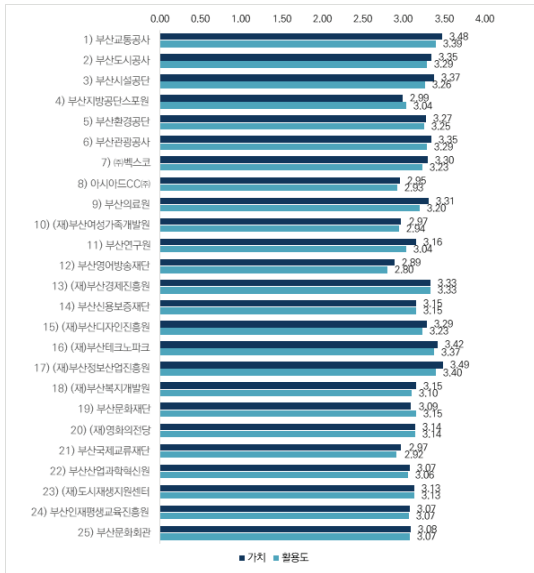
〈표 III-21〉 데이터 개방 및 구매 희망 정부기관

구분	데이터 개방 희망 기관명		데이터 구매 희망 기관명	
	빈도	%	빈도	%
<응답자 특성>(중복응답)				
(재)APEC기후센터				
	20	8.3	10	6.8
국립부산과학관	9	3.7	7	4.8
국립해양박물관	9	3.7	5	3.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	2.1	3	2.0
부산대학교병원	23	9.5	14	9.5
동남권원자력의학원	4	1.7	3	2.0
부산항만공사	5	2.1	2	1.4
기술보증기금	12	5.0	13	8.8
한국수산자원공단	4	1.7	2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	2.9	2	1.4
부산항만공사	12	5.0	11	7.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	5.4	5	3.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2.5	2	1.4
국립해양조사원	10	4.1	3	2.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	2.1	3	2.0
한국자산관리공사	15	6.2	9	6.1
한국주택금융공사	18	7.5	11	7.5
한국예탁결제원	9	3.7	9	6.1
주택도시보증공사	11	4.6	7	4.8
영화진흥위원회	15	6.2	7	4.8
영상물등급위원회	7	2.9	4	2.7
게임물관리위원회	9	3.7	7	4.8
한국남부발전(주)	5	2.1	4	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	3.3	4	2.7
중복응답 합계	241	100.0	147	100.0

IV.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4.1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계 극복 방향

데이터 기반의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품질의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들은 다양한 공공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나, 많은 사업비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서비스 모



〈그림 III-3〉 출자·출연기관별 데이터 가치 및 활용도

델로 개발하기에는 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데이터의 양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공공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필요하다. 부산지역 ICT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기관별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활용 및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터 수집 체계가 미흡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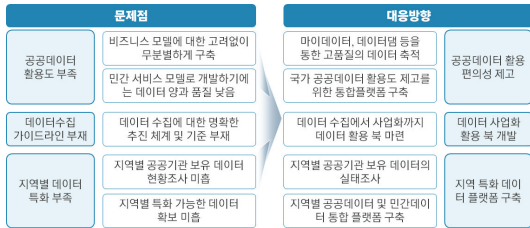
이러한 데이터의 공급과 수요와 관련된 문제

〈표 III-22〉 데이터 개방 및 구매 희망 출자출연기관

구분	데이터 개방 희망 기관명		데이터 구매 희망 기관명	
	빈도	%	빈도	%
응답자 특성(중복응답)	(64)		(53)	
부산교통공사	26	9.5	18	9.8
부산도시공사	11	4.0	9	4.9
부산시설공단	19	7.0	15	8.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5	1.8	3	1.6
부산환경공단	13	4.8	10	5.4
부산관광공사	17	6.2	12	6.5
(주)백스코	9	3.3	6	3.3
아시아드CC(주)	3	1.1	1	0.5
부산의료원	12	4.4	10	5.4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6	2.2	2	1.1
부산연구원	8	2.9	5	2.7
부산영어방송재단	3	1.1	-	-
(재)부산경제진흥원	17	6.2	13	7.1
부산신용보증재단	11	4.0	4	2.2
(재)부산디자인진흥원	14	5.1	9	4.9
(재)부산테크노파크	21	7.7	20	10.9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16	5.9	13	7.1
(재)부산복지개발원	10	3.7	6	3.3
부산문화재단	8	2.9	6	3.3
(재)영화의전당	9	3.3	4	2.2
부산국제교류재단	3	1.1	2	1.1
부산산업과학혁신원	6	2.2	4	2.2
(재)도시재생지원센터	9	3.3	2	1.1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	3.7	6	3.3
부산문화회관	7	2.6	4	2.2
중복응답 합계	273	100.0	184	100.0

들을 해결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공급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되던 사업들은 최근 데이터 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저장 방식,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데이터 댐과 연계한 지역특화 데이터

담 구축과 함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이는 부산지역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IV-1〉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대응 방향

4.2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활용도 제고 방안

앞선 절에서는 부산지역 데이터산업 관련 ICT 서비스업체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확대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데이터 수집에서 품질관리, 활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IV-1〉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구분	내용
다양한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으며,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서 미흡하다는 평가 · 수집되는 데이터 대부분이 부산시와 구·군의 행정데이터들로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는 미흡 · 데이터의 수집배경이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데이터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어려움 · 이에 우선 부산시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 기업뿐 아니라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홍보 필요 · 이와 함께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자체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통일성과 활용 편의성 제고 필요
<p>원활한 민간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원 ‘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한계가 있으며, 더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데이터의 활용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은 민간데이터는 공유가 어려우므로 민간데이터의 활발한 거래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정부는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므로 시급한 통과가 필요 · 민간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소를 부산에 설립하여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정책 추진
<p>‘공공클라우드센터’ 연계 공공기관 데이터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활용도가 높은 가치 있는 데이터들로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 가능 · 영도 동삼동과 문현에 위치한 해양 연구기관과 금융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 대부분은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보유 · 각 기관은 설립 근거가 다르므로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데이터플랫폼 구축
<p>데이터 품질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저장 시 품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시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p>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수집되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 부산시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산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수요맞춤형 데이터 수집·가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공급이 핵심 · 공공데이터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므로 실제 사업화 서비스로 활용되기 어려움 · 수요기업이 데이터 기술복덕방(중개기관)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가공한 후 공급하는 지원사업 필요 · 초기에는 공공데이터를 중개하고, 향후 민간데이터까지 확대하여 중개.
	데이터 수집·가공 전문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의 육성과 함께 데이터 활용 이전 단계를 지원할 전문기업의 육성이 중요 · 다양하고 질 좋은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필터링, 데이터 변환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개발기업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데이터 수집·가공 전문기업이 다양하게 육성될 경우 원활한 데이터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
데이터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되는 데이터는 모델링 등

	공공데이터 가공 지원사업	<p>분석에 사용되기 전 데이터 필터링이나 데이터 변환 등 전처리가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전처리 정도가 분석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데이터 포털에 수집될 공공데이터를 저장 전 전처리를 하도록 대학, 전문기업 등을 통한 데이터 가공을 거친 후 포털에 저장 시 데이터 활용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성 제고 · 데이터 가공 지원사업은 전문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와 함께 대학의 사업 참여를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도 이바지할 것
활용성 향상	부산시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Guidebook)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의 수집에만 집중하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제시는 미흡 · 부산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 등이 담긴 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 규칙 도출, 분석 툴 적용 등이 쉽지 않으며,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분석 결과와 직결 · 부산형 데이터 댐 구축과 함께 활용 가이드북 작성 시 지역기업들의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
	데이터 분석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등은 다양한 데이터 활용 경험이 필요하므로 창업기업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움 · 데이터 분석 기술이 부족한 기업들의 기술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컨설팅을 지

		원하는 것 ·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학협력형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은퇴 인력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확보 가능 · 데이터 분석 컨설팅 지원은 기술 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
--	--	--

부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꾸준한 노력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산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데이터 활용성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데이터산업이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품질의 다양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그간 정부가 수행하였던 마이데이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자원인 데이터 댐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존의 데이터 활용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이 선도하는 데이터 비즈니스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미흡하다. 지역의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업의 육성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돌파구가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라고 할 수 있다. 행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생산해 내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향후에는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 문헌

- [1]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2020. 05.07.
- [2]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07.14.
- [3] 관계부처 합동,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2020.10.13.
- [4]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홈페이지 (<https://www.knewdeal.go.kr/>)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9.2.),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사업 본격 착수
- [6]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0), 데이터 경제의 시작, 마이데이터 :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Samjong INSIGHT, Vol. 68.

저 자 소개



배 수 현(Bae, Soohyun)

- 1999년 2월 : 경상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사)
- 2005년 8월 : 부산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박사)
- 2007년 11월~2008년 10월 : 미국 Georgia Tech. Post-Doc
- 2009년 3월~2011년 12월 : 부산테크노파크 선임 연구원
- 2011년 12월~현재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관심분야 : ICT,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과학기술정책, 균형발전정책, 혁신 성장정책



김 성 신(Kim, Sungshin)

- 1984년 2월 : 연세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사)
- 1986년 2월 : 연세대학교 전기 공학과(공학석사)
- 1996년 2월 : Georgia Tech. 전기 공학과(공학박사)
- 1999년 3월~현재 :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델링, 지능형 예측 및 제어, 최적화, 계층적 학습 및 제어 구조



정 석 찬(Jeong, Seok Chan)

- 1987년 2월 : 부산대학교 기계 설계학과 (공학사)
- 1993년 3월 : 오사카부립대학 경영공학과 (공학석사, 박사)
- 1993년 2월~1999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1999년 3월~현재 :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 2019년 1월~현재 부산HT융합부품연구소 소장
- 2020년 7월~현재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IoT 융합,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